

멧돌 굴리기 평가

■ 여성 노동 운동 모임의 의의

(대학 내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문화주의 운동을 고민하면서, 그로인한 많은 성과지점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관심과 전략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작년 메이데이 기획단 女/聲이 꾸려지지 못한 것일 것이다.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기간 활동에서 보듯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 이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회 단체와는 독자적인)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멧돌 굴리기가 고민되었다. 멧돌 굴리기는 관악 여모와 연대 총여, 살맛 나는 세상이 함께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풀기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모성보호에 대한 입장인식 등의 과정이 있어왔다. 그러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성노동운동을 고무시키는 과정으로써 여성노동토론회가 기획되었다.

■■ 여성노동운동토론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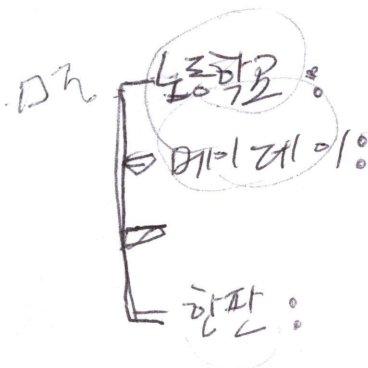
- 여성노동운동 토론회는 지난한 시간을 거치며 계획되었지만, 실상은 많이 늦춰져서 뻘뻘한 일정 속에서 준비가 되었다.

- 각 주제별 평가 (그동안의 평가 참고)

■■ 주제 평가: 주제에 맞는다. 여부 연락체계 단위총향 파악 //

■■■■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할 것들

[메이데이 이후의 전략과 활동 방향 — 목표지점...
주체와 소통에 대한 고민, 조직구성
멧돌에서 단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찾기



정리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가자

대학사회에서 여성노동을 이야기하기(여대생 취업문제를 고민하기?)

목적지. 생각나는 것만 - 통시라..

대학내에서 여성노동운동하기

-대학에서 여성노동 이야기하기의 어려움

여성노동이라는 문제를 학내에서 풀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말에서 오는 무게감, 대학생은 미래의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적 흐름이 전혀 자연스럽게 않은,, (현재에도 우리는 가사일이나 각종 알바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대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에서 여대생과 노동자여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기존의 분류를 넘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억압의 기제를 헤쳐내고 그것에 대항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

여성과 학생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대학사회에 몸담고 있는 위치로서 '커리어 우먼'이 아닌 '노동자'라는 말에서 오는 거리감.. 그러나 커리어 우먼도 노동자인걸?

또 하나 취업을 앞둔 여대생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지난 맷돌 토론회에서처럼 인터뷰등을 통한 접근으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찾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운동하는 주체로서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에 대한 풍부한 고민과 관점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여성노동담론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성주의적으로 노동을 다시 바라보는 등에 있어서- 맷돌굴리기는 지속적으로 자극제(밀고 당기는)가 될 것이다.

-so, 어떻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급진적으로 담론 형성하기/ 구체적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1. 담론형성

급진적으로 동시에 구체적?으로

노동의 개념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개념화하기- 재생산 노동 감정노동 등

산자유주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여성의 위치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비가시화되는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담론화해내는

유령. 기억 - 89

2. 구체적 현실에서 싸우기

대졸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한다. 하나는 사회전반적 취업난이요 둘은 그 속에서의 남녀 불평등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 구조는 취업과정에서 뿐 아니라 직장내에서 성별화된 분업과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내에서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교수들, '너희들은 가정주부만 안되면 된다'라며 여대생들의 미래를 가치절하하고 남성제자에게만 특권을 쥐어주는 교수들.

자유주의·능력주의라는 이름아래 여성을 이류노동자로 취급하고 취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것이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모집과정에서부터 교묘한 성별제한으로 여성을 걸러내는 기업·회사들.

길 잃은 고학년 여대생들은 하나하나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모여들고 죽어라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

는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똑똑하고 잘난 여성이 아니라는 것.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이름아래 예쁜 여성을 선호하면서, 같은 능력(?)의 여성과 남성중에서는 남성을 다홍치마로 선택하는 ..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남성은 '가장'이거나 '가장'이 되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겨우겨우 일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또 다른 싸움(불행)을 거기서 시작된다.

가부장적 기업·조직문화속에서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의 주변화, 일상적 성희롱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 대한 애착은커녕,, 탈출구 만을 찾게 된다.

이러한 예비여성노동자인 우리들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어떻게 함께 뛰어넘을 것인가? 대학에서 우리는 어떠한 운동들을 풀어내야하는가?

취업지원 워크샵?

네트워크 형성

성희롱 여성노조

법조문들 홍보,,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주체 먼저 교양이 되었어야 하겠죠?)

아르바이트 경험

졸업생들의 취업 경험,, 노동경험,, 특히 여성주의자 선배들이라면 더 좋겠지..

고민의 지점들을 끌어내는 것...

여성노동자 신규실업

신규실업자의 비정규직화

- 학군살, 근태를 척추 - 불매운동,
성폭력가해자 양자 - 불매운동

맷돌의 체계

1. 단위와 맷돌의 역할, 관계

이 문제는 '맷돌은 단위연대체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죠.

제 판단엔 현재 맷돌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도 여성노동에 깊은 관심이나 소스가 풍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분출되면서 맷돌을 하게된건 아닌거 같아요. 이 말은 각 단위들이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을 안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인이랄까, 맷돌이 아닌 단위들과 비슷한 면도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맷돌의 역할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기회를 열어주는, 동을 뜨는 역할. 그건 맷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면, 맷돌을 같이함으로써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점.

어쨌면 이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거죠. 그리고 이런 역할은 단위 책임자로 맷돌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재주껏(?) 해야할 부분이구요. 하지만 현재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죠. 그것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모르는게 많고, 또한 단지 얘기함으로써가 아닌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소통이 되기 위해, 그리고 단위 간 소통이 단위 내 뿐만 아니라 맷돌 단위들끼리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단위들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막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회를 잡는 것처럼, 사안과 활동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총회나 노동학교를 잡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총회를 막아놓고, 총회에서 얘기되는 것의 성격에 따라 노동학교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요. 매달마다 얘기할 꺼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정세라는 것도 있고 정기적인 판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4월 메이데이/ 5월 메이데이 평가와 이후 활동에 대한 모색/ 여름방학때는 여성연대 한판/ 9월 2학기 계획 등등..

그리고 정세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나 장기적인 여성노동관련한 주제를 잡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레드가 말했던 여름 현장활동(농활, 환활, 실천단..)에 대한 개입, 혹은 여성노동 세미나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학생회 선거를 맞아.., 사회단체와의 연대, 졸업 취업 시즌, 여성주의적 노동이란 대체 무엇인가? 등등 할 수 있고도 필요한 일은 얼마든지 널려있으니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건,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는 둘째치고 과연 이런 총회나 노동학교라는 형식을 매달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건 해봐야 알거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맷돌에서 단위별로 논의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고 단위별로 짜악 얘기하고 그걸 수렴하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암튼,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남겨두고 일단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하하, 말장난같네요) 맷돌의 활동을 하나 잡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맷돌 내부의 긴장감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단, 그런 기제로 단위와 맷돌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가? 암만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해도 시간적 간격도 길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리네요.

이것 또한 아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

이건 맷돌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각 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아요.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듯. 간단히 말해서 표류처럼 세미나를 꾸리던가 여모의 경우 잘 안굴리가는(;;) 일탈을 열심히 끌리고 살맛의 경우 #1의 화동이 계속 있어야겠지요.

2. 그럼 맷돌은 뭐 하고 단위는 뭐 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씁니다.)

맷돌

지난 회의때도 얘기된거지만, 웬만한 내용 논의나 사업 기획 등을 다 하게되겠죠. 물론 단위간 피드백이 잘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총회 준비하는 것처럼, 내용 준비나 글 분담 같이하고 검토하고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세미나도 하고, 딱히 내부에서 역할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회의 정리, 연락망 등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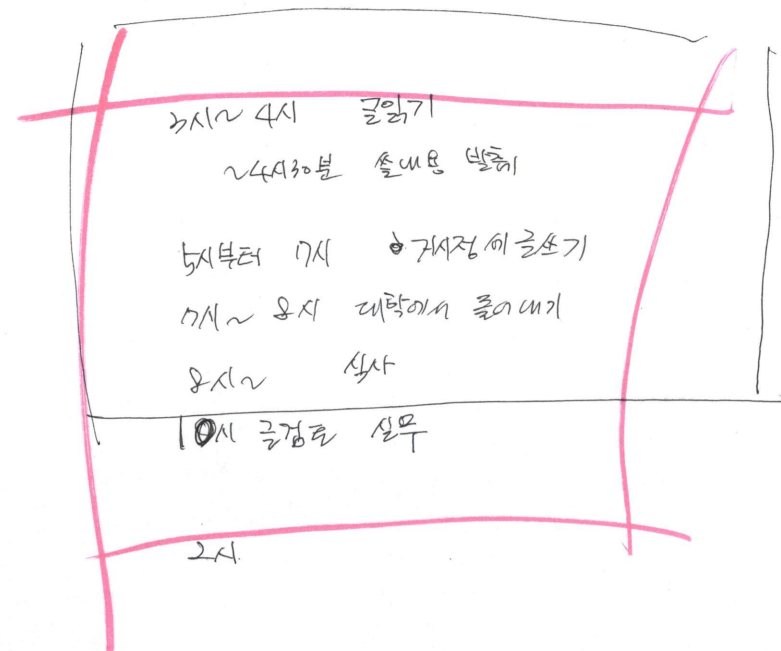
선전 같은건 단위 별 역분을 하자고 했죠.

-단위가 해야할 최소한은?

단위 내에서 여성노동관련 활동 내용은 뭐였으며 어떻게 했으며 평가는 어떠하며 등등.. 단위별 정세 분석,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 맷돌과 다른 단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이런 맷돌 회의에 안오는 사람들이 주로 쓰게하자~;; 그리고 자료실에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훌륭한 소스가 될 듯.

그리고 사업별로 결합이 가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관심은 있으나 개인들의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 자체가 광대할 때가 있으니. 예를 들어, 메이데이 기획단은 당연히 맷돌 말고도 여러사람이 같이 하겠지요. 그 밖에 어떤 주체나 사업이 대강 잡혔을 때 이런 의도로 이걸 할러는데 준비과정부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맷돌로?..)

> 개인 회원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인 회원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되서요. 만일 개인 회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건 맷돌회의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멧돌 굴리기 평가

■ 여성 노동 운동 모임의 의의

지나간 이미지 못함. 방향성 제시.

- 대학 내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문화주의 운동을 고민하면서, 그로인한 많은 성과지점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관심과 전략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작년 메이데이 기획단 女/聲이 꾸려지지 못한 것일 것이다.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기간 활동에서 보듯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 이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회 단체와는 독자적인)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멧돌 굴리기가 고민되었다. 멧돌 굴리기는 관악 여모와 연대 총여, 살맛 나는 세상이 함께 준비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오해풀기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모성보호에 대한 입장인식 등의 과정이 있어왔다. 그러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여성노동운동을 고무시키는 과정으로써 여성노동토론회가 기획되었다.

■ 여성노동운동토론회 평가

3.8 평가, 여성의 권리, 연락, 1000 이하, 여모-600, New 2012

- 여성노동운동 토론회는 지난한 시간을 거치며 계획되었지만, 실상은 많이 늦춰져서 뻘뻘한 일정 속에서 준비가 되었다.

- 각 주제별 평가 (그동안의 평가 참고)

■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들

- 메이데이 이후의 전략과 활동 방향 복합지점
 - 주체와 소통에 대한 고민 조직구성
 - 멧돌에서 (단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찾기
- 대학 내의 환경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심
지르기, 참여 인원.

사건 요약

← 여성의 만능지점 X,
관악에 125 X,

→ 노동 학교

모성보호에 대한 개악이나 개정이나라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입장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진행되었다.

2주제

좌파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과 그 안의 여성위원회의 위상들을 살펴보았다. 좌파에 대한 비판 지점이 그간 나온 좌파 비판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좌파에서 여성노동담론들을 훑어 보고, 인터뷰 등의 시도를 통해서 좌파 여성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짚어 보려 했다.

3주제

평범한 여대생들과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대생의 노동인식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들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의 여성주의적인 재개념화 등 여성노동운동을 여성의 시각에서 풀어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각 단위 안에서의 냉정한 평가들도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2는 처음의 기획 의도에서 의도치 않게 벗어난 부분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주제간의 소통의 문제와 공유, 논의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토론회를 통해 문제 된 연대의 상에 대한 고민 부족, 소통과 공유의 문제 등이 가장 크게 드러난 행사가 3.8일 것이다.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고민 부족, 아직 확실치 않은 연대의 상, 단위와 맺돌 간의 소통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8판은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 주체에게 일이 과부화 된다고나 또 성명서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지금의 맺돌회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또 단위와 맺돌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고민 속에서 조직구성론이 고민되고 있다.

■■■■앞으로 맺돌이 가지고 나아가 할 것들

□ 메이데이 이후의 활동방향

작년 메이데이 女/聲이 꾸려지지 못한 이후, 맺돌에서는 이번 메이데이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꼭 女/聲이 아니더라도 메이데이 시기에 우리의 활동 방향은 분명히 필요하다. 아마 이 총회자리에서 그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맺돌에게 중요한 한가지는 메이데이 이후, 여성노동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3.8판, 총회, 여성노동학교, 메

이데이를 거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해나간다면, 메이데이 이후 우리는 그 흐름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는 시급하고 필요한 고민이다. 기간 여성노동운동이 메이데이 기간 이후 별다른 흐름들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어떤 판이 될지는 모르지만, 메이데이를 잘 치러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바탕으로 방중과 2학기를 가져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 자리에서 메이데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다같이 연대의 상을 모색해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주체와 소통의 문제 -조직구성의 문제

어느 단위나 주체와 소통의 문제가 있을 테지만, 맷돌은 처음 시작하는 단위로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의 동의부터 필요한 부분이 많다. 우선은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담 그 연대의 상에 대한 인식의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나중에 조직구성부분에서도 얘기될 문제이지만 맷돌의 운동이 전체적인 여성노동운동에 활력이 되고 논쟁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맷돌 안에서의 고민들뿐만 아니라 쟁점을 활성화시키려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맷돌에서 얻어가야 할 것들

맷돌에서 각 단위나 개인이 얻어가야 할 명확한 지점이 필요하다.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우리가 그로 인한 힘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연대모임처럼 발전적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담론들을 형성하고 논쟁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주체들 내부에서의 관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두어야..